

‘아버지’를 읽는 두가지 새로운 시각

김상환 · 정유성 교수 계간지서 소설 《아버지》 분석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베스트셀러는 현실을 반영한다. 기세가 등등하던 쥐스킨트 열풍을 잠재운 김정현씨의 장편소설 《아버지》(문이당)는 명예퇴직과 불황의 국면을 적절히 반영해 밀리언셀러에 등극한다. 문학 쪽에서는 이 소설의 ‘품질’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나, 사회적 의미까지 애써 외면할 수는 없을 터. 문학 외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에 접근한 논문 두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아버지’ 없는 가족사진

김상환 교수(서울대 철학과)의 <베스트셀러에 비친 현실>《철학과현실》1997년 봄호)과 정유성 교수(서강대 교양과정부·사회교육학)의 <아버지 없는 사회>《황해문화》1997년 봄호)는 통념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두 논문은 아버지가 없다는 상황에 주목한다. 김교수가 쓴 글의 부제는 ‘아버지 없는 가족사진’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기대고 있는 이 글은 우선 “존경하거나 미워할 아버지, 모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아버지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를 완전한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서 부친살해보다 더 비극적인 일로 상징한다. 우리가 겪어온 사회적 무질서도 아버지 부재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김교수는 술에 취한 주인공이 아들의 방에서 자신이 빠져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놀라는 장면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아버지 없는 가족사진’은 우리 사회의 아버지 부재 현상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해외 여행을 갈 만큼 여유 있는 주인공의 가정은 현재의 우리 사회를 비유하고 있고, 가족사진에서 자신이 빠져 있다는 이 비정상적 사태는 우리나라 사회가 일정한 정치·경제적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치러야 했던 대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소설이 잘 팔리는 이유를 불황 국면에 접어든 경제적 침체에서 찾은 것은 전적으로 올바른 해석만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상업적 성공과 경제 불황의 상관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헤겔의 사회철학에서 정치·경제의 기본단위는 가족이고, 그

문학 외적인 측면에서 소설 《아버지》에 접근한 두 논문은 우선 아버지가 없다는 상황에 주목한다. 김상환 교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기대 ‘아버지 없는 가족사진’을 풀이한다. 또 정유성 교수는 아버지를 직무유기의 부권상실을 자기연민으로 포장한 사회의 전형적 상징으로 해석한다.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다. 결혼을 통해 성립한 가정은 정치경제학적 교환의 최소단위이며, 아버지는 교환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교환의 위축은 아버지의 위상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다.

소설과 현실이 ‘아버지의 수난’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고 보는 김교수는 소설 속에 무의식적으로 투영된 현실인식은 불안감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파악한다.

“그 소설의 즐거움을 떠받치는 현실적 토대는 경제적 불황이 아니라 거꾸로 고도성장기를 지나고 나서 누구나 공감하게 되는 경제적 성공이다. 잠정적인 불황국면과 거기서 비롯하는 아버지들의 수난이 그 책의 상업적 성공의 배경일 수 있지만, 그 소설 자체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상적 궤도에 오르기 위하여 아버지들이 감당해야 했던 비정상적 이력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소설에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앞에 두고 가족이 흘리는 눈물은 우리 사회가 성년에 접어들면서 저지른 잘못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풍요 속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원죄의식을 일깨운 점에서 이 소설의 의미를 부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베스트셀러 《아버지》에서 가족이 흘리는 눈물은 아버지를 적대하던 그런 원죄의식의 표현이자 그에 대한 속죄이다. 이 책의 상업적 성공도 이러한 속죄를 대신하는 데 힘입

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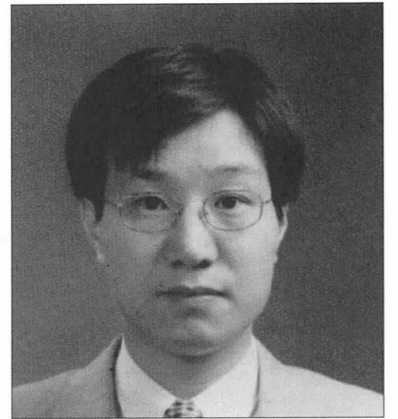
한편, 정유성 교수는 아버지들의 ‘비정상적 이력’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아버지들의 비정상적 이력

“아무리 산업역군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자식들이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지 못한 주제에 우리 자랄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타박한다. 세계에서 손꼽는 타락한 성문화를 만들어낸 주체들이면서 요즘 젊은이들의 문란함에 분개한다. 밖의 가혹한 철권통치에 숨죽이면서 아랫사람에게는 호통을 쳐왔던 부끄러움을 오히려 젊은이들의 철없음을 개탄하는 것으로 이겨보려고 한다. 자신은 한번도 진정한 아버지다운 아버지 노릇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한다.”

정교수에 따르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직무유기에서 온 자업자득의 부권상실을 책임전가와 자기연민으로 포장한 아버지 없는 사회의 전형적인 상징이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 아버지와 딸의 애곡된 관계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믿는다. 명문대 영문과에 들어가도록 학과 정원의 수를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을 정도다. 그러던 딸이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을 질타하는 편지를 보내자 몹시 서러워하고,



김상환 교수(위). 정유성 교수.

